



KDI SCHOOL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The Asia Foundation

2020 남-남 개발협력 웨비나 시리즈
2020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ADC) Webinar Series

코로나-19 시기와 그 이후, 아시아 개발협력의 변화

Changing Landscape of Development Cooperation
Amidst and Beyond COVID-19 in Asia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남 개발협력 국제회의(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ADC)는 아시아의 개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흥” 및 “전통” 개발 주체들이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상호 학습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2020년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남-남 개발협력 국제회의는 2011년 아시아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비공개 개발협력 간담회 시리즈를 시작한 이후, 변화하는 개발 환경속에서 새로운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빈곤친화적 포용성장(201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2013), 사회 이동성(2014), 아시아 남남협력의 미래(2015), 아시아 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역할(2016), 도시화 및 여성 역량강화(2017),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2018), 4차 산업혁명과 일의 미래(2019)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에서 아시아의 개발협력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올해 공개 웨비나로 진행된 남남협력 간담회 시리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시기와 그 이후에 아시아 개발협력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적 개발원조 및 남남협력에서의 새로운 변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비정부 주체의 역할 증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다자주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의 개발 전문가, 활동가, 정부 관계자, 학계, NGO 및 다자기구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포함한 웨비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 AADC 2020 웨비나 시리즈는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시아 지역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와 남남협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봅니다.
- AADC 2020 웨비나 시리즈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시 NGO와 기업을 포함한 아시아 비정부 주체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NGO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합니다.
- AADC 2020 웨비나 시리즈는 코로나-19 시기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의 다자주의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경험에서 얻은 아시아 다자협력의 교훈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고든 하인(Gordon Hein, 아시아재단 수석 부총재)는 AADC와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아시아의 개발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든 하인 수석 부총재는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시아의 개발협력이 국제개발협력의 전체 생태계를 변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대유행 상황에서 아시아의 (공공, 민간, NGO) 자원이 대응, 회복, 연구 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욱(Wook Sohn,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국제개발협력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국경을 초월한 조정과 영향력 있는 정책적 조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손욱 처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 교육, 사회보장, 정치적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오랜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손욱 처장은 또한 전통적인 원조 의제를 넘어서서 코로나-19에 대한 협력적 지식 공유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들 간 다양한 상호 학습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욱(Kwang Kim,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는 AADC 웨비나 시리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특히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KDI국제정책대학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광욱 대표는 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이번 웨비나 간담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는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역에서도 공중보건 및 안전, 경제안보, 거버넌스, 정치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 함께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New Demands and Dynamic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or South-South Cooperation on Asian Developing Countries in Covid-19

세션 I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수원국들의 과제와 원조 및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동과 시민/경제 활동의 제약과 함께 사회,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였습니다. 인구가 많고 자원이 적으며 기존의 공중보건 위기와 다면적인 개발과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이번 위기를 관리하고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단

기 및 장기적 영향을 해결하는데 국제개발협력이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좌 장 안시아 물라칼라 Anthea Mulakala, 아시아재단 국제개발협력 선임국장

발표자 솔타나 아프로즈 Sultana Afroz, 방글라데시 국무총리실 민간협력청 명예 사무총장 겸 CEO

권혁주 Huck-ju Kwon, 한국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회장

왕 첸 Wang Chen,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국제개발협력연구소 부연구위원

솔타나 아프로즈 대표는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투자 수요 증가에 대한 개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은 인프라 개발과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금세기의 블랙스완(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 경제와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오는 위기상황)으로 부상했습니다.

아프로즈 대표는 투자계약 중단으로 인한 재정 측면의 유동성 문제, 전염병의 영향에 노출된 사람들을 노린 대출, 공급망 중단의 지속, 예정된 프로젝트의 지연과 취소, 인프라 펀드와 투자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방글라데시의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와 이니셔티브를 실행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연평균 성장률 7.4%, 인프라 투자 125억 달러, 인프라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38억(3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로즈 대표는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며 PPP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훌륭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로즈 대표는 이번 위기 동안 방글라데시 정부가 어떻게 국제기구 및 개발 파트너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IMF는 위기 동안 방글라데시를 돕기 위해 총 7억 3,2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 대출을 승인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개발 파트너들로부터 기록적인 수준의 해외원조를 받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개발 파트너들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원조 파이프 라인을 열었습니다. 아프로즈 대표는 민간협력청이 기술지원, 자문, 투자 및 역량강화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가 현재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는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권혁주 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소개했습니다. 권혁주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력성과 결정적인 대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권혁주 회장은 한국의 '검사-추적-치료 및 격리'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바이러스를 진압하기 용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코로나-19대응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긴급대응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보건지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과 사회발전을 위한 경제적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권혁주 회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려면 비공식적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장, 건강보험 및 지역사회 돌봄, 기부 및 혜택과 적절한 행정역량, 보편적 아동수당을 포함한 공공 돌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염병 이후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추가 감염 예방, 이주 노동자 지원, 공공근로 프로젝트 시작,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혁주 회장은 한국이 노동 집약적 협력에서 자본 집약적 협력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접근방식과, 심층적 지식기반 협력에 대한 노하우, 명확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가진 ODA로 향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왕 첸 연구위원은 중국의 개발원조 접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과제 및 향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왕 연구위원은 중국 ODA의 기본 특징이 남남협력, 타 개도국 내정 비간섭, 평등, 타 개도국에 대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최선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성을 유지하고, 효율성과 실질적인 결과를 강조한다는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왕 연구위원은 중국이 국제적인 규모로 보건 의료 비상사태에 대응한 것은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며, 2014 년과 2015 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경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대유행은 국내 대응이 필요한 점에서 새롭고 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중국은 긴급 공중보건 및 의료팀을 파견하고 장기 의료팀을 동원하여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진단도구, PPE 및 기타 의료물품을 보급했으며 의료 시설을 짓기 위한 긴급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 연구위원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충격이 수요 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들은 보건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보험, 공평한 분배 및 양질의 기본 의료보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물류의 어려움, 자원 제약,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발병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연구위원은 개발협력 공여주체들이 더 대담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여, 글로벌 연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 전략에서 보건 의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해법 제공자로서 전 세계 남반구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질의 응답 / 토론

Q 중국 시민사회단체가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번 대유행이 남남 협력에서 중국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왕 첸 연구위원은 중국이 남남협력에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연구위원은 이번 대유행 시기에 중국 정부가 NGO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수원국과 해외 주재 대사관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연구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Q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의 협력과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권혁주 회장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이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 국가들 간 정부 차원의 협력이 특히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첸 연구위원은 시민사회 또는 연구기관 수준에서 협력이 시작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더 많은 협력 방법을 찾고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솔타나 아프로즈 대표는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글라데시가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대유행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남 국가들 사이의 전략적 계획과 지식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매우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제 NGO, 개발 파트너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ODA 관점에서 노동 집약적 협력과 자본 집약적 협력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권혁주 회장은 한국이 더 이상 신흥공여국이 아니라 책임 있는 OECD DAC 회원국임을 강조하면서, 다만 한국 ODA가 더 나은 역량을 갖추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혁주 회장은 프로그램 기반의 예산 지원, 더 많은 다자협력과 같은 변화를 통해 적은 인력으로 더 큰 규모의 ODA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Session II Asian Non-state Actor's Growing Roles in Response to Covid-19

세션II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비정부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비정부 단체들은 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풀뿌리 NGO와 지역기업을 포함한 이들 주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하여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동의 제한, 한정된 자원, 직원 안전을 위한 부가비용 등 NGO와 기업에게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AADC 2020의 두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NGO와 기업을 포함한 아시아 비정부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세션은 코로나-19시기와 그 이후 아시아의 NGO와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고 아시아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좌 장 정우진 Woojin Jung, 럿거스 대학교 조교수 겸 글로벌보건연구소 핵심연구진

발표자 **조대식** Daeshik Jo, 한국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하오밍 황 Haoming Huang, 중국 국제공익연구원(CGPI) 부원장 및 교수
송경용 Kyong Yong Song,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자나비 푸칸 Jahnabi Phookan, 인도 상공회의소연맹(FICCI) FLO 여성분과 회장

조대식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개발NGO의 대응과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개발NGO는 개발도상국이 전염병 예방활동, 생계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교육 및 훈련, 보건체계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COC는 한국 개발 NGO역량강화 프로그램, 옹호활동,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조대식 사무총장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 활성화가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탄력성, 올바른 생태계 구축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추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오밍 황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NGO의 글로벌 대응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황 교수는 현재 중국 개발NGO의 코로나-19 글로벌 대응이 6 개 대륙에서 최소 150 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 개발 NGO활동의 세 가지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기부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기부는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둘째, 전 세계적 대응 상황이 중국의 경험 확산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NGO의 글로벌 대응은 주로 국경을 초월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s)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중국 NGO들이 직면한 과제로 글로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원활한 국제 채널과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따라서 독립적인 해외 사무소 설립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NGO에 대한 국내법과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중국 NGO가 정부 및 글로벌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동시에 양자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자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나비 푸칸 회장은 코로나-19 대응과 민관협력(PPP), 지역 및 글로벌 개발과제에서 인도 기업의 역할을 공유했습니다. 푸칸 회장은 코로나-19는 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부분의 기업과 여성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신생 기업, 나노 기업가들이 최악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반등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푸칸 회장은 원격 근무가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가사부담도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고객 수요 부족과 공급망의 운영 중단도 또 다른 주요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푸칸 회장의 조직인 FLO는 코로나-19 이후 생태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푸칸 회장은 FLO가 단기적으로는 이주 노동자, 일선 코로나 대응인력, 확진자, 여성, 특히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 농업, 관광, 영세기업 및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방법의 일환으로 통합형 농촌 개발을 위한 마을 입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례로, 여성들이 가축을 판매하고 이를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것입니다. 민관협력의 한 예로 푸칸 회장은 한국의 주요 ICT 기업인 KT가 글로벌 전염병 예방 플랫폼(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 GEPP)과 감염병 예방 플랫폼을 개발한 사례와, AarogyaSetu라는 앱이 모든 인도인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인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푸칸 회장은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개인과 국가에 여러 가르침을 주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책임이 있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송경용 신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송경용 신부는 코로나-19가 고용, 글로벌 가치/공급망, 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적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송경용 신부는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가 급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사회적금융이 자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송경용 신부는 정부 긴급대출 공급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SVS)에서 24개 사회적금융 기관, 정부 출연 공공기관, NPO와 민간 기업들이 “다 함께 위기극복 공동행동” 기금을 출범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도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상호 부조와 같은 자발적인 노력이 국가 지원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경용 신부는 우리가 도움과 원조를 주거나 받기만 하는 주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이 경제와 사회구조를 재구성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질의 응답 / 토론

인도의 민관협력 현황에 대한 질문에 **자나비 푸칸 회장**은 기본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칸 회장은 인도의 공공 및 민간이 건강 앱 구축, 무료 식사제공, 코로나 전문병원 구축 등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모든 부문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FLO가 인도 7개 지역의 여성들과 협력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며, 여성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대식 사무총장은 대유행 이전에는 많은 활동에 몰두하느라 때로는 기관의 가치와 목표를 잊어 버리기도 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한 몇 달이 한국 NGO들에게는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조직과 자원에 있어 핵심단어가 '지역 역량강

화'라고 말했습니다. 조대식 사무총장은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국 NGO들에게 큰 각성의 시기였으며 앞으로 국내외의 활동 수준을 높일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송경용 신부**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잘 갖춰진 사회 보장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역 NGO의 지역 기반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재의 대유행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긴밀하게 이동성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지가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송경용 신부는 한국이 과거 IMF 경험으로 기본적인 사회 보장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이고, NGO가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후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오밍 황 교수도 중국 NGO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황 교수는 중국의 많은 NGO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NGO는 막대한 재정 위기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이라 혁신적인 모금 방식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투명성이 중국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황 교수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ssion III **Asia's Multilateralism**
Beyond Covid-19

세션 III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다자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상호 의존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었고 다자간 행동의 중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위기로 인해 악화된 사회, 경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원을 활용하고 정책 대응을 가속화하며 정치적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긴급하고 강력한 다자간 체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별다른 결과를 낳지 못했던 그간의 다자주의 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AADC 2020의 세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의 다자주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션은 글로벌 전염병의 경험으로부터 지역 다자주의에 대한 교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안합니다.

- 좌 장** **난디타 바루아** Nandita Baruah, 아시아재단 인도지부 대표
- 발표자** **로도라 바바란** Rodora Babaran, ASEAN 사무국 ASEAN 사회문화공동체 인간개발 국장
- 간볼드 바산자브** Ganbold Baasanjav, UNESCAP 동북아 사무소장
- 아누라다 체노이** Anuradha Chenoy,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국제학부 전 학장
- 렌조 구인토** Renzo Guinto, 필리핀 의과대학 St. Luke's Medical Center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책임자

로도라 바바란 국장은 먼저 아세안의 과거 전염병 경험을 설명하였습니다. 바바란 국장은 아세안 지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SARS, H1N1 인플루엔자,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과 같은 여러 질병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아세안 사무국의 보건분과가 코로나-19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하여 조기에 지속적인 지역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관광, 국방 및 경제 등 보건 이외 분야의 지원도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란 국장은 또한 아세안은 지역의 보건협력 기체들을 가동하고 아세안 보건협의체의 대화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파트너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아세안 지도자들의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아세안 청년, 의료 및 스포츠 분과도 코로나-19 인식을 위해 전면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회원국들의 축구 협회가 협력하여 캠페인을 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팬데믹 이후 아세안 공동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바란 국장은 이에 덧붙여, 전염병에 대응하려는 지역단위의 목표를 지원하고 달성하는 데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다자주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바란 국장은 전염병 상황에 대한 아세안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지역 사회와 정부의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을 마치면서, 아세안 지도자들이 지역 차원의 정책과 약속을 내놓으면서 아세안이 전반적인 코로나-19대응 및 회복을 위한 길을 닦아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간볼드 바산자브 소장은 먼저 코로나-19 발생이 어떻게 정치, 지역사회, 건강, 식량, 경제 안보와 같은 인간안보의 여러 측면을 위협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산자브 소장은 인간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는 모든 국가가 전염병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어느 국가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산자브 소장은 또한 다자간 과제와 해법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다른 많은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여 “다자간 과제는 넘쳐나고 다자간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국제협력이 “개발협력”의 틀을 넘어 확장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접근대상도 다양해지고 새로운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보건 안보에 대한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바산자브 소장은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접근 방식에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WHO의 코로나-19 전략 계획과 같은 기존의 기체와 COVAX 시설과 같은 새로운 다자간 메커니즘이 강화된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전염병과 같은 공통된 위협에 직면했을 때 각국이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산자브 소장은 코로나-19를 통해 다자간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 강화, 다자주의 개념에 부합하는 양자 지원, 지역협력 강화가 개발협력에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누라다 체노이 교수는 아시아와 특히 인도의 관점에서 개발협력과 다자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체노이 교수는 다자주의가 공공재와 공유재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자기구가 육성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

각을 피력하였습니다. 체노이 교수는 다자주의는 자원을 활용하고 정책 대응을 가속화하며 정치적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모범 사례에 대한 답을 항상 찾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개발원조는 지식 공유, 기술 이전, 금융 및 통화 협력, 저금리 대출을 통한 상호부조와 이익의 수혜로 제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체노이 교수는 또한 남남협력이라는 방법론이 개발원조의 서사를 바꾸었지만,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재고할 때라고 언급하며, 비조건성(non-conditionality)이라는 말이 SDGs와 함께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개발 정책에 여성 참여와 젠더 의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체노이 교수는 지금이 다자기구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적기라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더욱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다자기구와 기업 간의 관계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체노이 교수는 시민사회 강화가 건강한 민주주의, 참여 및 긍정적인 다자주의에 필수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렌조 구인토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보건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아세안의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구인토 박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경험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와 달리 코로나-19 대유행에 일찌감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교훈을 통해 지역 보건 거버넌스를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인토 박사는 아세안 국가들이 이 대유행의 초기 대응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의료의 코로나 전담화로 인해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자원이 다양해졌으며 재정이 고갈되고 활동이 연기되었으며 인력 과부하와 취약성 노출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인토 박사는 농업, 환경, 교육, 이주, 안보, 무역 및 투자 부문 등 보건 이외의 부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보건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정치와 다자주의를 잘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인토 박사는 세계 보건을 위한 양자, 다자 외교가 많지만 외교 정책과 보건을 위한 다자협력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안보, 발전, 글로벌 공공선, 인권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도가 없으면 양질의 지역 보건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남아시아도 국가 간 보건 노력을 조율할 자체 질병통제센터(CDC)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질의 응답 / 토론

Q 지역이 통합된 팀으로 함께 회복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연합의 청사진을 그리고 협력을 위해 아세안 지도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로도라 바바란 국장은 아세안이 함께 나아가기 위한 아세안 종합 회복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체계 강화,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내부시장 극대화 및 광범위한 경제 통합,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미래를 위한 포용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관심

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볼드 바산자브 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국가 간 상호연결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자주의에 대한 우려는 대유행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 총회가 평화를 위해 국제 다자외교를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구간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UN 총회는 책임있는 계획, 대응 및 조정을 위해 UN 국가 팀과 지역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누라다 체노이 교수는 개발원조가 수혜자에게 얼마나 적합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체노이 교수는 개발원조가 무엇이고 어떠한지 하는 것은 공여자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자간 소통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다자기구와 연결하고, SDGs와 연결하고, 사회 보호주의와 연결하기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 상자를 벗어나 해결하려면 상자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체노이 교수는 개발원조의 프레임 안에서 재구성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올 수 있는 전염병 백신과 의약품에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의 리더들이 한 데 모여 글로벌 로드맵을 만들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관점에서 더 잘 할 수 있겠는가?

렌조 구인토 박사는 우리의 건강은 백신보다 중요한 문제로 자칫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인토 박사는 백신에 대해 낙관적이며 아시아 국가들이 구매, 매커니즘 마련, 공정한 분배의 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를 위한 리더십이 아직은 구축되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구인토 박사는 치료에 대한 접근은 경쟁이 아니며 아시아 국가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ppendix

발표자 및 좌장 프로필

Session I

Speakers **솔타나 아프로즈** Sultana Afroz

방글라데시 국무총리실 민관협력청 명예 사무총장 겸 CEO. 방글라데시 정부 Sultana Afroz 사무총장은 민관협력청 (PPPA)에 CEO로 합류했다. 그녀는 1989년 12월 방글라데시 행정부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현재 임무를 맡기 전에는 재무부 경제관계부서(ERD)에서 유엔 담당 차관보 및 수석차관으로 근무했다. 로마주재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외교관(경제자문관)을 역임했으며 FAP, IFAD 및 WFP 등 로마에 기반을 둔 UN기구의 방글라데시 상임대표 대리를 지냈다. Afroz 총장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고, 이탈리아 로마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대사 대리를 지냈다. 행정부, 재무부, 식품재난관리부, 여성아동부, 초등 및 대중교육부를 포함하여 현장 행정 및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방글라데시 민간 부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부문 발전 프로젝트(PSD)의 핵심 구성원이었다. 1996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정책대학원(KGS)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다카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및 학사(우등) 학위를 취득하였다.

Speakers 권혁주 Huck-ju Kwon

한국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회장. 권혁주 회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현재 국제개발 분야의 선도적 연구조직인 한국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회장으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 정책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혁주 회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한국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권혁주 회장은 반부패민권위원회와 같은 여러 정부기구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개발기구에서 다양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정책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춘 책과 논문을 다수 저술하였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사회정책) 학위를 취득했다.

Speakers 왕첸 WANG Chen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국제개발협력연구소 부연구위원. 왕 첸 연구위원은 8년 이상 개발협력 및 글로벌 보건정책 연구, 정책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개혁, 대외원조체계 및 메커니즘 비교분석, 보건원조 전략 및 혁신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 및 컨설팅 활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 2014년과 2016년에 옛 상무부 대외원조부에서 내부 컨설턴트로 일했다. 북경대학교 보건학과에서 이증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콜롬비아대학교 보건대학원 MPH를 취득했다.

Moderator 안시아 물라칼라 Anthea Mulakala

아시아재단 국제개발협력 선임국장. 안시아 물라칼라 선임국장은 아시아에서 25년 이상 생활하며 일해 온 성공한 개발리더, 관리자, 정책전문가이다. 물라칼라 선임국장은 직접 또는 원격으로 다양한 팀을 주도하고 관리하면서 생식건강,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 거버넌스, 지역 협력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물라칼라 선임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았고,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같은 떠오르는 강대국들이 21세기 원조와 개발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해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글을 써서 출간하고 강연을 해 왔다. 아시아재단에서 일하기 전에는 세계은행, DFID, 멜버른 시 및 South Asia Partnership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에 사회적기업 MakanLah!를 설립하여 말레이시아의 아동 비만과 영양 부족 위기를 해결하고 있다.

Session II

Speakers 조대식 Daeshik JO

한국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조대식 사무총장은 국제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 NGO 네트워크인 KCOC의 사무총장이다. 시민사회에 합류하기 전에는 직업 외교관 생활을 해왔고,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2015-2017), 외교부 기획조정실 (2012-2015) 차관을 역임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 협력 분야의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조대식 사무총장은 다양한 NGO에서 자원봉사자 및 이사로 봉사했다. 1984년 외교부에 입사한 이후 외교 경력 동안 리비아 특별 전권 대사(2011-2018), 외교부 공공외교 사무총장(2009-2006), 경수로 사업기획실(KEDO) 국제협력국장, 스웨덴 및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총영사(2003-2009) 등 여러 부처와 세계 각지의 한국 대사관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2008 년과 2013년에 두 차례 대한민국 정부 공로 훈장을 받았다. USC(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사회학 석사 학위 및 학사 학위,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Speakers 황 하오밍 Huang Haoming

중국 국제공익연구원(CGPI) 부원장 및 교수. 하오밍 황 교수는 현재 중국국제공익연구원(CGPI)의 부원장 겸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공익연구원(CGPI)에서는 2017 년 6월부터 일하였다. CGPI에서 일하기 전 황 교수는 1998년 중국 NGO 협력학회(CANGO)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1999년부터는 중국 베이징 CANGO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는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CANGO에서의 직책 외에도 하오밍 황 교수는 칭화대학교 NGO연구센터 교수이자, 베이징 항공우주대학의 공공정책 관리대학원 교수, 중국 국립행정대학원 교수이다. 하오밍 황 교수는 라오닝기술대학교에서 광물공학 학사(1983), 카네기멜론대학교 공공정책관리 석사(1995), 텐진대학교에서 경제학 및 기술경영학 박사 (2014)학위를 취득했다.

Speakers 자나비 푸칸 Jahnabi Phookan

FICCI(인도 상공회의소 연맹) FLO 여성분과 회장. 자나비 푸칸회장은 FICCI(인도 상공회의소) 내 여성기업단체인 FICCI Ladies Organization(FLO)의 전국 회장이다. 8000명 이상의 여성 기업가 및 전문가를 대표하는 FLO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푸칸 회장은 FLO의 수장으로서 여성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정신과 전문적 우수성을 여성에게 심어주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을 이끌고 있다. 푸칸 회장은 JTI그룹 산하의 Jungle Travels India와 Assam Bengal Navigation Company라는 두 개의 National Tourism Award 수상 기업의 공동설립자이자 기업가이다. 푸칸 회장의 회사는 여행 및 관광(부티크 리버 크루징, 소그룹 맞춤형 여행, 차 및 직물)을 포괄하며 이 모든 것은 젊은이의 생계, 특히 여성과 지역 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Speakers 송경용 신부 Rev. Kyong Yong Song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송경용 신부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이사장이다. 송경용 신부는 사회주택, 시민 자산화,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등록 비영리단체 나눔과 미래의 의장이기도 하다. 송경용 신부는 한국 성공회 서울 교구 신부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도약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 혁신에 관한 확고한 사상적 지도자이자 존경받는 실천가로서 송경용 신부는 전 세계 정부, 다자기구, 지역사회 및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를 역임했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등 많은 정부 자문단을 이끌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큰 국제협의체 중 하나인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Moderator 정우진 Woojin Jung

릿거스 대학교 조교수 겸 글로벌보건연구소 핵심연구진. 정우진 교수는 릿거스 대학교의 글로벌보건연구소 조교수다. 정우진 교수의 연구는 세계 빈곤 완화를 위한 도구로서 개발원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우진 교수는 데이터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특히 취약한 국가들에서 빈곤과 원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며, 원조 활동이 원조 수혜자에 필요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세계 수준의 미세한 빈곤 평가, 국가 수준의 프로젝트 설계 사례 분석,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세분화된 평가의 세 가지 렌즈를 활용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위성 이미지를 결합하여 빈곤을 측정하고 원조 분포와 관련된 특징들을 강조한 바 있다.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UC버클리 사회복지/개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우진 교수는 2020년 사회복지학회 우수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논문은 World Development와 같은 개발 관련 학제간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 및 사회지표연구(Social Indicators Research) 등의 학술지 임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다자/양자간 개발기구(뉴욕 UNICEF, KOICA), 연구기관(Harvard Malcolm Winner Center for Social Policy) 및 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풀뿌리 조직(Nari Gunjan)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Session III

Speakers 로도라 바바란 Rodora Babaran

아세안 사무국 내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인간개발국장. 로도라 바바란 국장은 2014년 9월부터 아세안 사무국의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부서에서 인간개발국장을 역임했다. 바바란 국장은 건강, 교육, 청년 및 스포츠, 노동 및 공무원, 빈곤퇴치 및 젠더의 4개 부서로 구성된 인간개발 이사회의 다면적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아시아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고, 필리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를 취득했다.

Speakers 간볼드 바산자브 Ganbold Baasanjav

UNESCAP 동북아시아 사무소장. 간볼드 바산자브 소장은 대한민국 인천에 위치한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이다. UNESCAP 이전 간볼드 소장은 몽골 정부 소속으로 외교부 내부와 해외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몽골 외교부에서 지속가능발전 대사(2018-2019)를 역임했다. 그 전에는 주한 몽골 대사 (2013-2018), 몽골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2008-2013), 주 베트남 몽골 대사(2004-2008)를 역임했다. 간볼드 소장은 또한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2001-2003)과 몽골 외교부 공보국장(1998-2000)을 지냈다. 경력 초기에는 북한 평양 주재 몽골대사관 (1989-1993)에서 해외 외교 임무를 맡기도 했다. 몽골국립대학교 (1997-2001) 겸임교수이자 외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학장을 역임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 국제관계 연구소 (MGIMO)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미국 마노아 하와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Speakers 아누라다 체노이 Anuradha Chenoy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국제학부 전 학장. 아누라다 체노이 교수는 JNU 국제학대학원에서 은퇴한 명예교수이자 전 학장이다. 체노이 교수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 및 UGC 지역 연구 프로그램 이사, 인도 개발협력 포럼 위원장(정보시스템 연구), 2013-2020를 역임했다. UNESCO, UN 평화유지군, 국제적십자위원회, Action Aid, Asia Europe People's Forum, Women in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등 다양한 기구들에 단기자문을 제공하였다. 체노이 교수는 많은 책을 저술하고 저명 학술지에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많은 연구를 게재한 바 있다. 저술한 책으로는 Militarism and Women in South Asia, Kali Books, New Delhi, 2002; The Maoist and Other Armed Conflicts, Penguin, 2010, [Co-authored with Kamal Mitra Chenoy]; Human Security: Concept and Implications, 2006, Routledge, UK [Co-authored with Shahrbanou Tadjbakhsh]; "Countering Militarization, Building Peace: The Intersectionality of SCR1325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2011) 등이 있다.

Speakers 렌조 구인토 Renzo Guinto

필리핀 St. Luke's Medical Center 의과대학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책임자. 렌조 구인토 박사는 필리핀 St. Luke's Medical Center 의과대학의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창립 이사이자 글로벌 공공보건임상 부교수다. 그는 또한 사람과 지구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실천 공동체”인 PH Lab의 최고 행정 박사다. 오바마재단 아시아태평양지역 리더이자 아스펜연구소 New Voices Fellow이기도 한 구인토 박사는 캠브리지 대학 기반 코로나-19 이후 인구보건 개선 Lancet-Chatham House Commission; Lancet Planetary Health 편집 자문위원회; 카타르에서 열린 보건분야 세계 혁신 정상회의 중 기후 변화 및 건강 포럼; 오슬로 대학에 기반을 둔 Lancet One 보건위원회 등 여러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미국 국제개발처, 국제이주기구, 필리핀 보건부 등 다양한 조직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공중 보건 박사, 필리핀 마닐라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다.

Moderator 난디타 바루아 Nandita Baruah

아시아재단 인도지부 대표. 난디타 바루아 대표는 아시아재단의 인도지부 대표이며, 그 전에는 네팔 지부 대표로 근무하였다.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성, 인권, 노동이주 및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25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인도 CIDA의 젠더 자문관 및 남아시아 지역 젠더 펀드 매니저로 일했다. UN 여성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과 UNODC UN-GIFT 프로그램의 지역 코디네이터였다. USAID 인도에서 지역 인신매매 방지 및 젠더 전문가로 근무했다. 이러한 역할을 맡는 동안 Nandita Baruah 대표는 권리 기반 및 성 평등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의 핵심 사회-경제-정치 차원을 효과적으로 다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들을 지원해 왔다.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에서 일했다.